

통

97

페미니즘 캠프

-우리 여성주의 하러간다!!!

장소 : 강원도 동해 낙산

일시 : 7월 25-28일

25일 「여성으로 나누기」



금의 차례

I. 인사말

II. 전체 일정 및 전체 놀이

- 외벽제

- 집안경거

III. 조별 주제 토론....

1. 나는 페미니스트인가
2. 가족내 억압 구조
3. 여성성 표현하기
4. 월경주제
5. 일상속의 성에 대해
6. 연애
7. 매제 습격
8. 매스 크래머
9. 궁조병
10. 여성과 신도

IV. 주제가 있는 방

1. 무접는 교육 동화 다시 쓰기
- 이한어대
2. 뽀빠리 Training
- 한양대
3. 노래 가사 바꿔 보르기
- 성균관대
4. 뽀빠리
- 서우어대
5. 포션술병
- 연세대

인사글 - 동국대 제2대 총학생회장 김인영(푸아)

이 사회 안에서 여성이 살아가기란, 산다는 것 자체로도 실로 힘겨운 투쟁일 수밖에 없다.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여성은 사회에서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 철학, 정치, 경제 어느 부분에서도 여성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것은 꾀잡잡하기 그지없는 작업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문화를 찾는 것은 거의 무모하기까지 하다. 더구나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그들만의 세상'에는 여성들만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만한 어떠한 여건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마도 캠프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아닐까 한다.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 공간은 영원한 안식처라는 미명하에 억압의 근원을 은폐하고 있는 가정도 아니고, 진보의 시발점이라고 말하지만 변변히 실만한 여학생 휴게실 하나 없는 학교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는 여성을 시기와 질투의 화신으로 그려 놓았다. 캠프를 한번 갔다 온다고 해서 그 신화가 뒤바뀐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단 몇일만이라도 사회에서 여성에게 뒤집어 씌운 모든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한다.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타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을 느끼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으면 한다. 여성들만의 친밀성의 공간 속에서 그동안 감추어져 왔고 함구하기를 요구받았던 여성의 삶을 들추어보면서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자신있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총학생회, 여성위원회, 성정치위원회, 여성학회, 여성자치연합, 여성모임연대등 각 대학에는 여성운동을 고민하는 단체들이 있다.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 활동도 각 학교 상황에 따라 어느정도씩 차이가 있지만 '여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로 인한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여성이라는 이름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타 단위와의 연대의 지점을 모색할 정도의 여유가 없을만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대생들이 하나의 행사를 함께 준비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언제 한번 여성이 여성이라서 즐거운 적이 있었는가. 즐겁기는커녕 자신이 여성임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여성임이 즐거운 캠프가 되었으면 한다. 여성임을 느끼기, 여성적으로 글쓰기, 여성의 몸알아가기, 여성적으로 법 읽기, 여성적으로 뛰어 놀기... 이렇게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하나씩 '여성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작업들을 통해 우리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억압이 아닌 행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3박4일 동안 '아, 여자로 태어난 것이 다행이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 왔던 캠프의 성공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전체일정

25일 「여성으로 나누기」

11시 출발(동대, 10시 모임)
13시 점심(도시락)
18시 도착
- 방배치랑 조장 뽑기, 내부 조짜기, 밥먹기
20시 전체판(강당)
- 들꽃모임에 대한 약간의 설명과 캠프를 즐겁게 보내기 위한 이야기들 정도... (푸하)
- 일정소개, 지피기 소개, 생활 규칙 소개, 주의 사항, 노래·윷놀이 배우기
21시 조별판
1. 이름 연상게임
2. 성적 정체성 그리기
-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림을 가지고 조 사람들 묻고 대답하고...
3. 양파까기
- 간단히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다.
단어를 부르고 떠오르는 단어 말하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것에 대해 욕하기
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하기
분노하기, 카운셀링 등(이 프로그램은 전부 들쭉 짚을 지어 진행한다. 또한 짚은 되도록 계속 바뀌는 것이 좋다.)
23시 잠

27일 「Feminist Comingout」

06시 일어남
26일과 별다를 바 없는 일
07시 재료 배분, 주제 마당 설명(날총)
09시 방별 주제 마당 설명 - 강당(날총)
각 방 지피기 2명, 지피기들은 20분간 준비(홍보 AND 분배)
1. 뒤집는 교육 ————— 이대
2. 법률 Training ————— 한대
3. 노가바방 ————— 성대
4. 몸방 ————— 서울여대
5. 호신술방 ————— 연대
12시 밥
14시 철인경기(조별, 회)
18시 밥
20시 주제마당 총화 (강당,날총)
21시 30분 Campfire (이다)
불꽃놀이, 풍물마당

26일

06시 일어남
산책하고 씻고 밥먹기
07시 재료 받기, 조별 주제 토론 설명(이다 - 주의사항, 시간, 방법)
09시 조별 주제 토론
선정된 주제들:
나는 페미니스트인가/ 가족내 억압구조/ 여성성 표현하기/ 월경축제/ 일상 속의 성에 시비 걸기/ 연애/ 매체 썰기/ 미스코리아/ 공주병/ 이승희 신드롬
12시 밥
14시 그림 공동 작업 설명(강당)
그림 공동작업(바닷가)
빨리 끝내고 바다 들어가 놀기
18시 밥
20시 조별 토론 총화 마당 (이다)
22시 위령제, 귀신 콘테스트 (마당)
24시 잠

28일

08시 일어남
산책, 밥
10시 조별 시간
- 이미지 맞추기 게임, 플링 페이퍼, 자기를 거부한 물건 선물하기
13시 점심
14시 출발
15시 점심(휴게소, 주먹밥)

전체놀이 I

철원경기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여자가 힘이 세면 어디다가 써먹냐? 그냥 여자는 얌전하게 앉아서 요리나 빨래만 잘하면 되고 그러다가 힘 센 왕자님을 만나 애나 쑥쑥 잘 낳으면 되는 거야. 힘 센 여자?? ... 아휴~ 그게 여자냐!'

정말 무식한 놈은 어디서든 무식한 티만 내고 다닌다니까. 그런 놈들은 머리로 못 이기면 힘으로 이기려 드는데 말이지. 어디서 감히 여자를 힘으로 이기려 드나 몰라.

자,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소릴 듣고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우리 모두 별떡 일어나 이 무식한 놈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줘 버리자구.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애긴데, 나참. 사실 여자들한테 언제 힘 쓸 기회나 줬난 말이야. 남자애들 바지 입고 신나게 돌아다닐 때 우리 여자들은 공주옷 입고 인형놀이나 하면서 얌전히 있어야 했잖아. 어찌다가 옷이 조금만 더러워지길라도 하면 '여자애가 칠칠치 못하다'는 등 '저 지지배 누가 데려가냐'라는 식의 얘기밖에 더 들었어? 학교 다니면서 남자애들 농구니 축구니 뛰어다닐 때도 여자들은 별 기회가 없었다는 거지. 한마디로 우리 여자들은 늘 조신하고 얌전하게 살아오도록 강요당해온 게야. 후후. 열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산으로 들로 뛰어 다니면서 우리의 체력을 과시해 보는 거야. 자 어서 일어나 저기 보이는 낙산 바닷가로 뛰어나가 보자. 그리고 남자들이 시시한 놀이라고, 여자들 따위나 하는 놀이라고 무시해 오던 고무줄이나 줄넘기 같은 것들도 오랜만에 비아냥 듣거나 줄 끊길 염려없이 신나게 해보는 거야.

0. 각조마다 바디 페인팅

1. 꼬리잡기 & 넘보
2. 기마전
3. 고무줄
4. 씨름 & 순이 어머니
5. 줄넘기

전체놀이 II

원형제

기조

흔히 한국인의 정서는 '한'으로 집약되어진다. 이러한 '한'은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서로 인식되어 있으며 많은 예술 매체에 있어서 독특한 양식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즉 '한'을 미로 승화시켜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를 표출해내는 '한의 미학'인 것이다.

으스스한 골목을 들어설 때나 친구들과끼리 여행이라도 가서 어두워질 무렵에는 한번쯤 '귀신 이야기'를 꺼내보았을 것이다. 이승에서의 한을 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혼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짜릿한 공포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귀신 이야기 속에서 '한'을 품고 떠돌아 다니는 혼령이 모두 '여성'인 것은 왜일까?

우리는 흔히 한의 정서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며 한국 고유의 정서로 미화시키게 된다. 하지만 무수하게 떠도는 귀신 이야기 속에 '여성의 한'이라는 것은 엄연한 '억압'의 현실로 존재한다. 이러한 억압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그 현실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많은 여성들을 위로하고 이 시대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전히 '억압'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되돌아본다.

<이러한 내용을 한껏 토해내봅시다.>

1. 애 못 낳아 소백맞아 죽은 귀신
 2. 강간당해 죽은 귀신
 3. 전쟁 성노예로 살다간 귀신
 4. 낙태당한 여아 귀신(6개월 이후)
 5. 남편에게 맞아죽은 귀신
 6. 아들 낳으려 계속적인 출산도중 죽은 귀신
 7. 화냥년으로 몰려 죽은 귀신
 8. 성형수술하다 죽은 귀신(유방 성형, 예쁜이 수술...)
 9. 과부로 평생 살다 죽은 귀신
 10.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죽은 귀신(동성애)
- (내용 표현 방식은 자유-단 3분간!)

주제가 있는 방

1. 뒤집는 교육-동화 다시 쓰기

"이상해, 동화에 나오는 공주들은 하나같이 눈도 크고 코도 오뎅하고.. 절대 못생긴 공주가 없어.. 못생긴 여자는 꼭 성질이 더럽단 말이야.. '미녀와 야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데(미녀는 무조건 최성적이고 착하니까..) '후녀와 왕자'.. 뭐 이러니까 좀 이상한걸.. 정말 예쁘기만 하면 장땡이라니까... 예쁜 얼굴로 왕자만 기다리면.. 왜 선택받기만을 바라는 걸까... 잠자다가 왕자가 보뽀하면 눈을 살포시 뜨잖나... 에이 참.. 생각해보니 기분 나쁘네...."

이해력이 발달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접하게 되는 동화책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들은 이야기책 특유의 환상적이고 신기한 세계에서 그들의 흥미와 사고체제를 집중 형성해나간다.

이링 페처라는 사회철학자에 따르면 서양에서 동화는 원래 민초들에게 아주 의미있는 기별과 정보를 의미하는 이야기들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민초들 내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는 것을 저지하려던 봉건지배계급은 이 활동을 규제하고자 했다. 시민혁명 이후에 민초들의 토론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그것도 잠깐일 뿐 새로운 지배 체제가 확고해지면서 동화는 소시민적 낭만주의로 채색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동화에 나타나는 환상적이고 신비한 세계로의 유혹에는 지배 체제의 이데올로기가 스며들어 있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상징적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화에는 지배집단이 원하는 '여성상'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화에 나타나는 인물 수식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수식하는 형용사가 다양하게 드러나지만 여성의 경우 특정 형용사에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착하다', '예쁘다', '얌전하다', '식'의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형용사는 '훌륭하다', '나' 책임감 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남성 묘사와는 크게 대조된다. 말하자면 남성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은 인격이 부여된 실체가 아니며 철저히 대상화된 실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성의 다양성은 남성 시각에 의해 이분법적으로 규정되고 통일되며 말살된다.

따라서 여성은 동화 속에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등장하지 않으며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고 평가되어 진다. 어떠한 '왕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여성의 삶은 극단과 극단으로 내몰리게 된다. 흔히 '신데렐라'를 예로 드는데 이 동화에 나타나는 여성 특유의 의존성, 자립기피증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동화를 읽으면서 여자 아이들은 강요된 '여

성성'이란 하나의 생존방식임을 내재화하게 된다. 즉 효율적으로 대상화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인가를 무의식적으로 파악하고 배워나가는 것이다. 동화에 등장하는 여성은 집요하게도 남성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으며 정작 스스로는 타자화되어 있다. 여성은 남성의 시선에 의해 대상화되어야만 그 존재 자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그리고 강력하게 강요하고 있다.

또한 동화에 나타나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노동시장의 성별 이중구조와 대응관계를 이룬다. 즉 여성은 사적인 측면의 가사노동을 주요업무로 하며 남성은 공적 차원의 생산노동을 담당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킨다.

이제 '남성 지배/여성 억압'이라는 성별구조를 기반으로, 남성 중심적 가치와 질서를 비판하고 억압받는 여성공동의 이해 속에서 동화에 드러나는 남성 중심적 문화와 상징체계를 뒤집어 보자.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들. 동화를 읽으면서 느꼈던 답답함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우리를 움아매고 있던 사슬들을 찬찬히, 그리고 과감하게 벗어던집시다. 이제 여성의 시각으로 새롭게 뒤집어 봅시다!!!

2. 법률 트레·이!

법은 한 국가의 사회 구조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정치 기술 또는 규범으로 정의된다. 어디까지나 이 정의는 명백히 옳은 것이다. 남근주의적 국가의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정수로 법률은 존재하며, 법률은 제재라는 기제를 통해 법률 제도 밖의 여성을 참혹히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사회 구조와 법은 남근적 이데올로기의 공고한 합집합을 공통적인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다. 사회 구조와 법의 교집합은 법의 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세상을 재단하고, 분획하고 짜맞추는 과정에 있어 체계 안의 남근중심주의를 확장하는 것이다.

법은 한 국가의 사회 구조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정치 기술 또는 규범으로 정의된다. 어디까지나 이 정의는 명백히 틀린 것이다. 정치 기술이라는 어휘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규범은 지배 권력 주류의 권리와 이데올로기를 위해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의 총체적 표현이라는 객관적 지위는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지배적 주류는 남근이다. 세상의 중심에 남근이 존재하며 남근은 그들의 가치로 그들의 세상을 구축할 권리를 양도받았다. 그들의 세상에서 여성의 권리란 개념조차 허용될 수 없다.

법은 한 국가의 사회 구조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정치 기술 또는 규범으로 정의된다. 어디까지나 이 정의는 명백히 옳은 것이다. 참여의 가치는 진보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실에 천착하여 현실을 구성하는 제반 조건에 개입하는 것이 참여의 의미라면 새로

운 현실을 담보하는 변화는 진보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 단정은 너무도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것이다. 그러나 그\렘\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타자인 여성이 여성의 의지로 여성을 위해 행하는 현실 개혁의 몸부림은 투명하고 확실한 신념이 된다. 그러므로 여성이 법제도를 개혁해가는 일련의 행위를 법획득으로 규정한다.

3. 노래 가사 바꾸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구?!

그 어느때 보다도 92년도 이후 한국 가요는 호황기를 맞이했다고 하더군. 켓, 장르에 있어서도 80년대에 주류를 차지하던 발라드와 트로트를 넘어 락 발라드와 메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전의 노래들과 비교해보면 가사가 매우 직설적이고 재미난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껍데기가 얇아져 먹기 편하게 된 것이지 그 알맹이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야. 사실 대다수의 남성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들은 지나치게 남성중심적 시각과 언어로서 가사를 표현하고 있고 어느덧 그러한 노래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 우리는 마냥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는 하지요.

어디 이것이 가요에만 그치는 일입니까. 대학가에서 불려지는 민중가요 또한 전형적이지요. 이 노래들을 듣고 있자면 마치 모든 운동가는 남자이고 모든 노동자, 농민들도 남자인 것 같아. 언어는 지극히 남성적 언어이며 인물의 성별은 모두 남자이지요. 하기에 여성을 따로 대상으로 하는 몇몇 곡들이 있지요 '딸들아 일어나라' '여성 전사'와 같은.. 곡명에서부터 여성의 이름을 다는 노래들. 이러한 몇몇 곡들의 제외한 모든 곡들은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극히 남성적 감성과 언어에 충실한 노래들이지요. 몇몇 민가를 부르다 보면 '아들아'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곧바로 '딸들아'라고 이어 붙이는 곡들이 있지요. 딸의 이름은 작사할 때 원래 없었고 한참 후에 부르면서 그냥 붙여진 것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겠지요. 그 동안 우리들의 노래는 정말 빈곤했어. 흑흑

이제 여기 '97 페미니즘 캠프 노가바방에서 한국 가요의 역사를 전복합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여성의 언어로서 여성의 한을 풀어내는 노래를 찾습니다!! 개사곡 몇곡을 같이 배우고 여성적 몸으로 표현하기. 그리고 직접 멋들어진 우리들의 노래를 창조해나가는 곳. 모든 여성이 공감할 수 있는 감동의 노래. 우리 가슴에 맺힌 용어리를 시원하게 풀어내는 짜릿한 노래 등등...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구??

그래, 우리 한 번 신나게 울어 재껴버립시다. 그리고 이놈의 집구석과 남성주의로 찌든

세상 망하라지. (수탉은 아무리 울어도 못 할껄~)

아저씨

김민정 작사

최수정 작곡

왕편한 저 눈썹, 음흉한 저 미소, 다가오는 아저씨, 너무나 큼찍스리 자꾸만 내 허리에
아저씨 손올리면 난-구- 역-절-이나
아저씨 아저씨 역겨운 아저씨 나에게 한번더 그 손을 올려노면 다른 사람 많은 사람
모두들 보겠지만 난 소리칠꺼야
언젠가 내게도 나만이 바래왔던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래
언젠가는 언젠가는 -워 -우 -워
길 갈 때 지하철로나 내 여자일지라도 맘 편할 수 있다면
발정난 많은 남자 몽땅 불구로 만드는 세상 만들고 싶어, 우어- 우어-

여성 이데아

이다 작사

서태지 작곡

됐어 됐어 이제 그런 가부장제 됐어 그걸로 족해 족해 내 언어로 내가 늘어 놓을래
매일 아침 일곱시 삼십분까지 우릴 조그만 화장대에 몰아 놓고
전국 이천만의 여성들의 걸모습에 모두 똑같은 것만 강요하고 있어
막힌 콧 막힌 철저히 막힌 그리고 덩칙 우릴 먹어 삼킨
이 시커먼 텔레비전엔 개미허리/ 인형 얼굴/ 잘빠진 다리/ 우웻!

좀더 예쁜 너로 만들어주겠어 네 옆에 앉아 있는 그녀보다 더
하나씩 뜯어 고쳐서 달라지도록 해. 좀더 잘난 네가 될 수가 있어

왜 바꾸지않고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왜 바꾸질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워~~~~

4. 몸바!

도대체 언제부터 가름하고 작은 얼굴에, 늘씬 쪽쪽 뽕뽕한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지? 옛날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한테 "복 많이 받게 생겼네"하면 기

분이 좋았는데 요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불쾌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밖에 나갈 때마다 내 사정도 모르고 툭 튀어나온 요놈의 통배랑 아스팔트 위의 건포도 같은 내 가슴 때문에 신경이 쓰여 식은 땀이 다 나온단니까(거들이랑 볼륨 업 브라를 살까 생각중이야). 그래서 날씬하고 이쁜 여자들만 보면 부러우면서도 불꽃튀는 눈싸움을 한판씩 벌이곤해. 게다가 웬지 그런 애들은 머리에 든게 없다는 생각에 또 혼자 우쭐해 지곤 하지. 한마디로 혼자 복치고 장구친단니까. 근데 이상한 건 혼자라도 풍악을 울렸으면 신이나야 할텐데 무지 찻찻해. 하여튼 요즘은 여자로 태어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워. 안그래도 콤플렉스 덩어리인데 생리라도 터지는 날에는 난 배도 너무 아프고, 혹시라도 피가 셀까봐, 그리고 불편하고 찻찻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한단 말이야. 한때는 생리하는 것도 짜증나고, 애 낳는 것도 무서우니까 자궁을 들어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끔찍하더라.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내 몸은 왜 이렇게 약한거야? 근육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낮이건 밤이건 사람없는데 가면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이젠 나보다 훨씬 어린 남동생이랑 팔씨름 해도 맨날 지기만 해. 후후!!

근데 또 요 몸통이가 참 신기하단 말이야. 이젠 진짜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인데... 있잖아... 난 어렸을 때부터 야한 그림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상하게 오줌이 마렵더라. 샤워하면서 내몸을 닦으면서 쓰다듬으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오긴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디 때문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신기해. 게다가 몸의 어느 부분은 아무리 만져도 간지럽지 않은데 어떤 부분은 조금만 건드려도 까르륵 넘어간단 말이야. 지나가다가 혹은 TV에서 멋진 사람이라도 보면 어느새 입이 벌어지고 침이 뚝뚝! 아이 쪽팔려. 혹시 내가 색마라서?

너희들도 그러니? 이런 얘기 사실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같고 그리고 기타 동등의 이유로 말이야. 같이 터놓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강한 여성 만들기!!!

못생겼다고, 힘없다고 구박만하던 내 몸통이, 널 사랑하겠어.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기 몸에 대해 콤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 시대마다 아름다운 여성상이 존재해 왔었고, 여성의 몸은 항상 남성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움을 획득하기 위해 온갖 타해와 자해를 동시에 겪어 왔다. 여성 파워의 원천인 출산은 동시에 여성 종속의 근원으로서 남성들의 지배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 또한 단지 자기 소유의 몸이 아니다. 몸방에서는 현재 여성의 몸을 둘러싼 권력관계들과 제도적, 사회적 장치들에 대해 함께 토론을 하면서 자기 몸의 구석구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왜 그런지를 직접 만지고, 보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또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져 오던 여성의 몸 쾌락에 대해서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내 통배, 니 통배 서로 만지면서 돈독해지는 자매애!! 들어는 봤나?)

5. 호신술 - 길들여진 노예 근성을 거부하며.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무조건적인, 대뇌를 안 거처도 되는, 본능적인 일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10여년이상 '정상적으로' 사회화된 여성은 매우 자주 자신의 육체를 포기하곤 한다. 생존 본능마저도 무색하게 하는 이 사회의 'princess maker project'를 파헤치고, 길들여진 수동성, 길들여진 공포심에서 벗어나려는 몸짓의 시작으로 이번 들꽃 FEMINISM 캠프의 호신술 방을 준비해보았다. 지금부터 하려는 당연한 얘기는 너무나 당연하여 더 이상 슬프지 않은 이야기일지 모른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세상에 나홀로 당연하지 못하여' 세상에 대해 무모한 시비를 거는 이가 이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제 사회에 작은 생체기라도 낼 것을 믿으며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개인적으로 자신이 남자보다 힘이 약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속상해하고 좀더 강해지려는 노력을 마다않는 친구를 알고 있다. 나역시 달리기나 씬박질 아니면 키제보기에서 거뜬히 남학우들을 이길 수 있었던 국민학교 초기 시절이 분명 그리우며, 어느날 부터인가 말도 안되는 속도로 길어져 나를 내려다 보며, 가끔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누나가 까부는 것을 남자답게(?) 너그러이 용서하기 시작한 남동생을 보며 위협을 느끼곤 한다. 생물학에서는 이런 나의 유약함을 해부학적으로-여성은 출산을 위해 남성보다 더욱 벌어진 골반 구조를 가지며 따라서 달리기엔 불리한게 된다.- 설명하며, 소설에서는 가녀린 여체를 깨질 것 같은 아름다움이니, 으스스해질 듯이 그녀를 안았다는니 하며 칭송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운명적인 유약함을 받아들이고 곱디 곱게 자라야하는가? 그것보다 나는 정말 이만큼밖에 힘을 쓰지 못하는가? 또한 강간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의 필연적인 육체의 포기는 비단 힘만의 문제인가?

눈을 감고 꿈을 꾸듯이 우리의 평생을 거꾸로 거꾸로 떠올려보자. 여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당했던 어떤 동작, 어떤 재주들...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일들이 얼마나 물염치한 것인지, 반면에 남을 배려하고 남(대개는 삼종지덕의 남자 주인공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여자답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쉬지 않고 떠들어 대던 드라마나 영화 동등, 끊임없이 곁에서 생활의 모든 3D작업을 처리해 주는 통에 힘이란 도무지 내게 쓸모없는 야만의 능력으로 여겨지게 만든 세상의 모든 남자들, 대학에서 사회에서 감각적 에로틱함이나 청순함을 발휘할 때만 남자들의 물적 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똑똑하고 눈치 빠른 여자라면 누구나 알고있듯이) 아름답게 꾸미는 것만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되어버린 나의 몸통아리.....그리하여 여기에 힘이랄까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를만큼만 남아버린, 어떻게 세게 밟길질하는지 어린 시절 아득히 까먹은 지 오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보호받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아름답고 유약한 노예'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이런 사회에서 자란 여성이라면 필연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요구하는 싫지 않은 남성에게 거부 의사를 당당히 밝히기가 꺼려질 것이고, 강간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쉽게 공포감에 질리게 되고 자신의 육체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고, 저항을 해보려는 용기가 다행히도 생겼을지라도 현실적으로 너무나 약하고 거친 동작에 익숙치 않은 몸통아리를 다시한번 확인하게 될 뿐이다. 그러그러하여 여기에 호신방이 생겼으니 자~왔어요. 왔어....

나의 몸의 권리는 나에게 있다는 진리를 확인하고, 여성답지 않다고 금지되었던 몸짓들을 이색하게나마 시도해봅시다요.

조별 주제 토론

사랑하는 나의족쇄, 가족내의 억압구조

푸른 풀밭에 아이들이 까르륵 웃어대며 뛰어 놀고 저 멀리 부모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앉아서 아이들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 뒤로는 비둘기라도 날고, 풍선이라도 띄울 일이다. 사랑과 행복의 원천이며,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더욱 개개인을 품어 줄 것으로 기대되는 가족, 그러나 이러한 행복의 시나리오속에 아버지의 권력은 가부장제 사회의 모든 권력의 토대로 자리잡았으며, 위태로운 행복의 시나리오를 유지하느라 어머니는 희생을 최대의 덕목으로 삼아 나날이 껌데기가 되어 가시며, 아이들은 누구에게 경제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착한 아들 딸 연극'을 하고 살게 된다. 사랑과 권력의 모순이 융집된 나의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자.

여성성은 남성적이지 않은 것?

한때 페미니스트들은 "우리가 남자랑 다르게 무어냐? 우리도 다할 수 있다."라고 우기다가 언젠가부터는 "우리에게는 너희에게 없는 여성성이란게 있다."라며 다름의 미학을 강조하다 못해 주변성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스스로가 여성이지만 이미 많은 억압과 세뇌의 세월을 살았기에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성성이 무엇인지 형제도 모르게 오염되어 버렸을지 모른다. 이번 캠프의 기초도 여성 문화 창출이라지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자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구성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 느껴지는 여성성들에 대해 미흡하게나마 말로 표현해보고, 퍼포먼스 등을 통해 표현해봄이 어떠할지.

여자는 피를 부른다.-월경 축제.

글로리아 스타이넘의 여성망명정부에 대한 공상에서 [남자가 뎀스를 한다면]이라는 글을 읽어 보셨는지. 아마도 그네들은 생리 주기와 우주의 질서의 일치 등을 들먹거리며 남성들의 위대함을 설교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피의 분출 경험을 갖지 못한 열등한 여성들을 비하시킬 것이다. 이렇듯 권력을 가진 자의 문화, 현상은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포장되기 일쑤이다. 여성의 생리는 언제나 불결하고 더러워서 감추어야 할 것으로 취급되어 굵기야는 어느 나라에선가 더러운 월경 냄새가 나는 여성과 같이 버스를 탈 수 없다는 남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지고, 여자들이 알아서 버스 뒤쪽에 모여서 앉으라는 법이 통과될 지경이라니 너무하지 않은가. 자, 나의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으로 인

해 즐거워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몫이다. 월경에 대해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월경 축제 한판을 벌여봄이 어떠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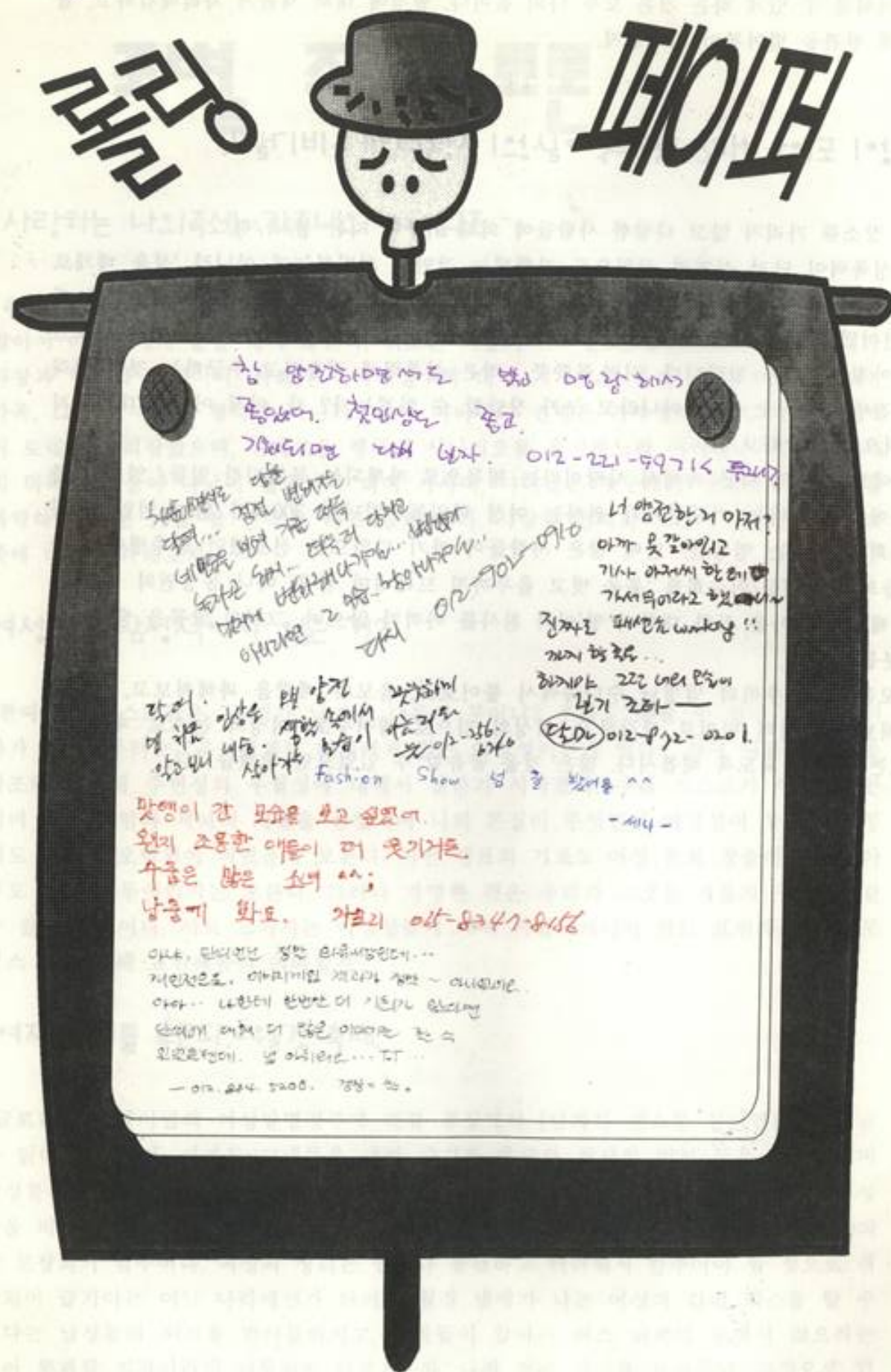
·살·이 되어 버린 성폭력.-·살·의 성폭력에 시비걸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 지는 성/폭/력/ 이제 성폭력이 단지 성기의 삽입으로 자행되는 것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회사 생활 1년이면 엉덩이를 치며 음담패설을 해대는 아버지같은 상사에게 센스있고(?) 애교있게 받아칠 수 있게 된답니다. 이런,쫄쫄... 작은 성폭력에 적응하고 수긍하는 것이 미래의 강간범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자,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밖에도 연애의 각본 속에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불합리한 일들/ 영화나 광고 속에서 드러나는 가부장제가 원하는 여성 타입들/ 일년에 300개가 넘는 미인대회가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타입으로 선호했던 공주병에 대한 남성들의 입놀림들/이승회를 '웃을 벗고 음부까지 드러내며 한국, 아니 동양권의 국위 선양을 해내고 돌아온 장한 대한의 딸'이라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그녀의 알몸을 숭배하는 남성분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엄청난 수다속에서 풀어보고, 음모와 계략을 파헤쳐보고, 관점도 제시해보며 여성의 머리로 생각하고, 여성의 입으로 씌어주고, 여성의 눈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해봅시다.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닥미



내 것이 소도랑 참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You are so beautiful.

생(장윤주) 019-161-2081 / 454-2023

많은 야기 못해서 인과참리
 많 느낌은 아부.
 야부 온전한 비능도 민화기법.
 생래 본게 뭐가?
 하권의 영이 그야 두께 끝이런
 인은거야 - 인법화하여 해

015.147.0115

Hi?
 우리 하마에서 정말
 재밌었어. 3주. 지상 같은
 곳. 우리 잘 어울려. 모든
 바닷물과 같은 것. 사
 면장커야. 9351. 7001
 이/6.

तुम्हारे।

음... 연니 못 지만 갓
어울려요. 연니 2살도
맞았어... 연니는 배우
말도 (아니 할 수 없다.)
리우니는 미안한 것 같아요.
연니는 말도 애먹을래
아닙니다. 갓하게 섰어요. 우리
라이브 ?

는 6월 26일

34

171

② (2-66)

100

02301

12

1111

14

10

우리 여성주의 하러 간다

97 페미니즘 캠프

발행인: 동국대학교

편집인: 성균관 대학교

이 운주, 권 호중